

사순 시기

사순은 본래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 엘리야 예언자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신자들은 참회와 희생, 극기, 회개와 기도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 대축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2월22일 이우철 시몬 신부(69세)
- 2020년 2월25일 최현묵 마태오 신부(40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위원회와 함께하는 즐거운 사순생활

사순 시기 독후감 공모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미사 참례와 성사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영적 독서를 통해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서명]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박도식 신부 지음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자라 자녀들에게 읽히는 책들이 있다. 이런 책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 곁에 머무르며 깊은 깨달음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책은 가톨릭 교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로 유명했던 박도식 신부의 저서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도서명] 지친 하루의 깨달음

안셀름 그린 신부 지음

다양한 관점에서 피로의 모습들을 관찰하여 피곤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증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도,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들은 피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대상

사순 시기를 즐겁게 보내고 싶은 모든 이

기간

2021년 2월 21일~3월 31일
(마감일 소인 유효)

참가방법

홍보위원회가 선정한 위의 영성 서적 2권 중 1권을 읽은 후 소감이나 묵상글을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로 작성하여 응모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commu@catholic.kr
우편 접수: [04552]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30 평화빌딩 별관 3층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즐거로운 사순생활> 담당자 앞 (접수된 원고는 반환 안 됨)
*원고 상단에 교구, 본당, 성명·세례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기입

심사기간 및 발표

심사: 4월 1일~14일 | 발표: 4월 15일 전
후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및 개별 통보

시상인원 및 내역

총 20명에게 시상 |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입선 10명

도서명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박도식 신부 지음
'지친 하루의 깨달음', 안셀름 그린 신부 지음

도서 구입처

가톨릭출판사 (www.catholicbook.kr) 및 기타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